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손서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기획국\*, 백석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 The Effect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Experiences on their Mental Health

Bok-Jung Kang\*, Ki-Jung Kang\*\*, Su-Sun Park\*\*\*, Seo-Hee Son\*\*\*\*

Management & Planning Bureau,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Dept. of Welfare for the Elderly, Baeseok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양육 변인인 부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인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 감소 및 부모역할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우울, 자녀양육,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mental health includ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Data came from 471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 child who participated in the home visiting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vid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self-esteem was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of parenting,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he mothers’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ir proficiency in Korean, household income, perception of parenting, parenting stress, knowledge on child development,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mental health.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that increase parenting efficacy and reduce parenting stress would be helpful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Depression, Parenting, Self-esteem, Mental Health

\* 본 논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보고서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효과성 연구를 통한 발전방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18 May 2016, Revised 30 June 2016  
Accepted 20 July 2016, Published 28 July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hee S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sson@sm.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생활 문화 양식 및 언어에 대한 적응, 새롭게 형성된 가족들과의 관계에 적응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어머니에게 기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높은 실정이다[1].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 남편의 양육 참여 부족으로 인한 양육부담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버팀목이 생김으로써 한국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시댁식구 등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경험하고 가족 내에서의 지위가 한층 확고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하게 된다[1,4]. 이처럼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자녀양육에 따른 즐거움과 보람은 한국 생활에 대한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 되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부모됨의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정신건강(mental health)이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상태로 개인의 낙관성, 정서조절능력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정서 요인, 개인의 신체·인지·사회·경제적 능력, 가정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적 지지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5,6].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녀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 내재화 문제 등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도 증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7].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삶의 질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8,9]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그중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10]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완화시키고,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지지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나 상태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1].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1], 자녀양육에서의 경험은 어떠한지[2, 3],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8,9,10]가 상당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자녀양육의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자녀양육 경험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12]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자긍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부모역할 자긍심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이처럼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대부분은 비다문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다문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어머니 또한 자녀양육 경험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별 생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주 초기에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다문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모됨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교육 없이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정체성 및 역할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4].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등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비다문화 어머니 대상 연구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양육[15] 및 자녀의 발달[1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상담,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17].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대상 아동에게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 영역, 시민교육영역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17].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인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는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방문교육지도사와 다문화 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방

문 자녀생활서비스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 동기를 살펴보면, 방문 교육시 엄마도 방문교육지도사로부터 자녀의 교육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에 맞춘 일대일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즉,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교육지도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 부모역할 수행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양육 관련 변인,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양육 관련 변인,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자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지원,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혼이주여성의 설문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로 구성된 설문지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하여 총 4가지 언어로 구성하여 배포하였으며,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을 방문한 방문지도사가 대상 아동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직접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기재가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471부를 이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한국 거주기간,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 연령, 자녀수로 측정하였다. 연령, 한국 거주기간,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 연령, 자녀수는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하’ 1에서부터 ‘상’ 3까지로 구분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취업여부는 ‘전업주부’인 경우 0,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1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2.2.2 자녀양육 경험 관련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관련 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스트레스로 측정하였다. 부모역할 인식 및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부모교육서비스 사전사후검사 문항을 이용하였다. 부모역할 인식은 ‘부모됨의 동기는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는 아동의 강점 발견 및 계발을 촉진시킨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되었으며, 10문항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응답 범위: 1점 - 5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발달 관련 지식은 ‘아동의 주요 발달 영역은 신체, 운동,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아기는 전 인간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르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위는 ‘예’로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하여 각 문항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나

타낸다(응답 범위: 0점 - 10점).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2010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19]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나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응답 범위: 1점 - 5점).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2.2.3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RKMS(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여[20], “결혼생활에, 배우자로서 남편에게, 남편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아버지로서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불만족’인 경우 1점, ‘매우 만족’인 경우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결혼만족도는 4가지 문항의 산술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응답 범위: 1점 - 5점). 척도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alpha$ )는 .94로 매우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Park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21]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내가 겪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등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을 시댁식구, 친구 및 이웃,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분류하여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평균을 사용하였다(응답 범위: 1점 - 5점). 사회적 지지 척도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alpha$ )는 .8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2.2.4 정신건강 관련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우울로 측

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22]. 자아존중감 척도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응답 범위: 1점 - 4점),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수준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CESD-10)을 사용하였다[23]. CES-D 축약형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 느낀 정도를 1점 ‘극히 드물게(1일 이하)’에서 4점 ‘거의 대부분(5~7일)’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0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응답 범위: 1점 - 4점). 전체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의 특성

<Table 1>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3.2세이다(범위: 23세 - 52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27.4%), 필리핀(10.6%), 캄보디아(4.9%), 일본(4.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8.59년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51.2%, 취업 중인 경우가 48.8%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26.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5%) 순이었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녀의 평균 연령은 6.51세였으며, 평균 자녀수는 1.95명(범위: 1- 6)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47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Age (M = 33.20)	20 - 29	145	30.8
	30 - 39	252	53.5
	Over 40	71	15.7
Nationality	Vietnam	218	46.3
	China	129	27.4
	Philippines	50	10.6
	Japan	22	4.7
	Cambodia	23	4.9
	Others	29	6.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5	7.4
	Middle school	121	25.7
	High school	218	46.3
	2 year college	28	5.9
	University and above	69	14.6
Duration of Stay in Korea (M=8.59)	Less than 5 years	23	4.9
	5 years - 10 years	317	67.3
	10 years - 15 years	107	22.7
	Over 15 years	24	5.1
Occupation	Yes	230	48.8
	No	241	51.2
Household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124	26.3
	100 - 200	210	44.6
	200 - 300	92	19.5
	300	45	9.6
Child's Age (M=6.51)	Under 6 year old	266	56.5
	8 - 9	160	34.0
	Over 10 year old	45	9.6
Number of Children (M=1.95)	1	128	27.2
	2	263	55.8
	Over 3	80	18.0
Variables		M	SD
Proficiency in Korean		2.27	.57
Perception of parenting		4.32	.51
Parenting stress		2.55	.61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9.32	1.24
Marital satisfaction		3.60	.94
Social support		3.46	.71
Self-esteem		3.11	.43
Depression		1.70	.46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능력은 평균 2.27점(SD = .57)으로 중간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부모역할 인식은 평균 4.32점(SD = .51)으로 부모역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55점(SD = .61)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았으며,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 = 9.32, SD =

1.24).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결혼만족도(M = 3.60, SD = .94)와 사회적 지지(M = 3.46, SD = .71)는 중간보다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평균 3.11점(SD = .4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우울은 평균 1.70점(SD = .46)으로 중간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2 다문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관련 변인인 부모역할 인식( $\beta = .29, p < .001$ )과 양육스트레스( $\beta = -.29, p < .001$ ), 결혼만족도( $\beta = .10, p < .05$ ), 사회적 지지( $\beta = .17, p < .001$ )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총 분산의 32%를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18.28, p < .001$ , <Table 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반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이 낮은 것은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Table 2>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Married Immigrant Mothers' Self-esteem

(N = 471)

Variable	B	SE	$\beta$	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00	.00	.01	.16
Duration of stay in Korea	-.01	.01	-.04	-.71
Education	.02	.02	.04	1.06
Proficiency in Korean	.04	.03	.06	1.43
Occupation (No = 0)	.02	.03	.02	.54
Household income	.03	.02	.07	1.66
Child's age	.00	.01	.01	.11
Number of child	.00	.02	.01	.14
Parenting-related Variables				
Perception of parenting	.24	.03	.29***	7.13
Parenting stress	-.21	.02	-.29***	-7.18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01	.01	.04	.87
Family and Society-related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04	.02	.10*	2.28
Social support	.10	.03	.17***	4.04
Constant		1.73***		
adj. R <sup>2</sup>		.32		
F		18.28***		

\* $p < .05$ , \*\*\* $p < .001$

### 3.3 다문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한국어 능력( $\beta = -.13, p < .01$ ), 월평균 가구소득( $\beta = -.09, p < .05$ ), 자녀 양육 관련 변인인 부모역할 인식( $\beta = -.14, p < .01$ ), 양육스트레스( $\beta = .31, p < .001$ ),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beta = -.13, p < .01$ ),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인 결혼만족도( $\beta = -.18, p < .001$ )와 사회적 지지( $\beta = -.13, p < .001$ )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총 분산의 33%를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 = 18.43, p < .001$ , <Table 3> 참조).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자녀 양육 관련 모든 변인이 우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인식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Married Immigrant Mothers' Depression

(N = 471)

Variable	B	SE	$\beta$	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00	.00	.03	.73
Duration of stay in Korea	.01	.01	.04	.85
Education	-.03	.02	-.06	-1.46
Proficiency in Korean	-.11	.03	-.13**	-3.19
Occupation (No = 0)	-.01	.04	-.01	-.32
Household income	-.05	.02	-.09*	-2.33
Child's age	-.02	.01	-.07	-1.66
Number of child	-.01	.02	-.02	-.43
Parenting-related Variables				
Perception of parenting	-.13	.04	-.14**	-3.39
Parenting stress	.24	.03	.31***	7.56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05	.02	-.13**	-3.18
Family and Society-related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09	.02	-.18***	-4.29
Social support	-.08	.03	-.13**	-3.08
Constant		3.15***		
adj. R <sup>2</sup>		.33		
F		18.43***		

\* $p < .05$ , \*\* $p < .01$ , \*\*\* $p < .001$

#### 4. 결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서는 임신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효과성 재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 가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역할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자녀 발달에 대한 지식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비교적 양호했다. 다문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중간보다 높았으며, 우울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녀양육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가족 및 사회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의 경우 한국어 능력, 가구소득, 자녀양육 경험, 가족 및 사회관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함으로써 어머니의 낮은 우울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14]와 연구 결과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2,13]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어머니의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이 자녀발달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24]를 고려할 때,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문 자녀생활서비스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자녀양육 경험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개인적 측면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관계 관련 변인 및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보유 정도가 한국생활 적응을 높이고 정신건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을 연관하여 접근하는 실천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8,9,11]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 수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수준은 어떠한지,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참여 여부에 따른 자녀양육 경험 양상과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살펴본 것으로, 서비스 이용 전후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등의 양육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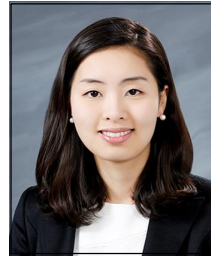
- [1] Y. Kim, A. Lee, & E. Lee,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differentiation in its policy demand."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 [2] S. S. Park & H. S. Ryu, "A exploratory study on adaptation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6, No. 2, pp. 25-47, 2009.
- [3] N. Choi, H. Woo, S. Jung, H. Park, & S. Y.,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7, No. 2, pp. 255-268, 2009.
- [4] M. Yoon & H. Lee, "A study on the foreign mothers' adaptation through parenthood experiences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2, pp. 103-135, 2011.
- [5] H. Moon, J. Kim, M. Sung, S. Son, S. An, & Y. Chang, "Mental health." Chanjisa, 2015.
- [6] H. Hwang, M. Lee, & J. Hong, "Related factors with the depression in the rural peop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21-29, 2011.
- [7] H. Park,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ternalized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depre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7, pp. 353-376, 2014.
- [8] S. Roh & E. Y.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4, No. 4, pp. 370-379, 2012.
- [9] J. Ha & Y. J.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9, No. 4, pp. 254-264, 2013.
- [10] C. Lee & S. Kim,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foreign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4, pp. 73-91, 2010.
- [11] S. Kim, H. Lim, & G. Jeong,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1, pp. 221-235, 2013.
- [12] J. Yang, "Longitudinal stud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esteem, a value of children's mother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3, No. 4, pp. 303-327, 2015.
- [13] J. Lee & M. Ja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rol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2, pp. 339-352, 2008.
- [14] H. Chun & K. Ok, "The effect of maternity and childrearing system variables on postpartum depression in Korean mothers."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 2, No. 2, pp. 71-90, 2011.
- [15] H. Y., Jung & O. B. Chung,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school readiness levels of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8, No. 2, pp. 277-297, 2011.
- [16] J. Rhe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2, pp. 105-125, 2012.
- [1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Program guidelin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15.
- [18]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 study on improving efficiency of Home visit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14.
- [19] K. Yang, S. Kim, J. Park,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youth in Korea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 [20] H. Chung,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Scale." Family & Environmental Research, Vol 39, No. 12, pp. 205-224, 2001.
- [21] J. Park, "Study on Social Support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22] S. Lee, "Influencing factors of bullying at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23] S. Bae & W. Shi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ES-D scale: An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18, pp. 165-190, 2005.
- [24] H. J. Yoon & B. H. Cho,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1, No. 2, pp. 59-88, 2004.

손 서 희(Son, Seohee)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Ph. D.)
- 2012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일-가정양립, 맞벌이가족
- E-Mail : sson@sm.ac.kr

강 복 정(Kang, BogJeong)



- 1996년 2월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Ph. D.)
- 2006년 5월 ~ 현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기획실장
- 관심분야 : 가족 및 다문화정책,
- E-Mail : bogjeong@kihf.or.kr

강 기 정(Kang, KiJung)



- 198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9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Ph. D.)
- 2001년 2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및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 E-Mail : kkj@bu.ac.kr

박 수 선(Park, Susun)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석사)
- 200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Ph. D.)
- 2012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Mail : sunybono@seowon.ac.kr